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터뷰

“호남고속철 1구간 오송~송정역 내년말 개통 약속 반드시 지킬것”

고속열차 '해무' 투입

“호남고속철도 1구간(충북 청원군 오송역~광주 송정역·총 연장 184.5km) 개통 시기가 내년 말인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개통 시기를 지키겠습니다.”

김광재(5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3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화재 발굴과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됐는데, 첨단기기를 이용해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모두 만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완공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개통구간에서 시운전을 할 계획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터널 공사기간이 2년 11개월 소요된 것과 관련, “다소 공사기간이 길었다는 말도 있는



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노령산맥의 경우 암반이 강하지 못해 붕괴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2년11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투입 열차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한국형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HEMU-430X·최고

시속 430km)가 투입될 것”이라며 “익산·정읍·장성구간은 수평구간으로 이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다른 구간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고, 해무가 투입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33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호남고속철도 2구간 공사에 대해 “광주와 전남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가 2017년 개통 예정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이 완공되면 최고 시속 430km로 열차가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그는 “우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33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유통)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미약 밀수입 '꼼짝마'

3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광주세관 미약탐지견 '란'(6년생)이 여행객 수화물의 미약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7월 15일~8월 31일)을 맞아 해외여행객 급증과 더불어 사회안전 위협물질 등의 국내반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약·인육캡슐 등 불법물질 반입 차단을 위한 해외여행객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3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광주세관 미약탐지견 '란'(6년생)이 여행객 수화물의 미약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7월 15일~8월 31일)을 맞아 해외여행객 급증과 더불어 사회안전 위협물질 등의 국내반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약·인육캡슐 등 불법물질 반입 차단을 위한 해외여행객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저소득층 체감물가 여름철 높아진다

식료품 지출 비중 높은 탓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장마, 태풍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여름철(7~9월)에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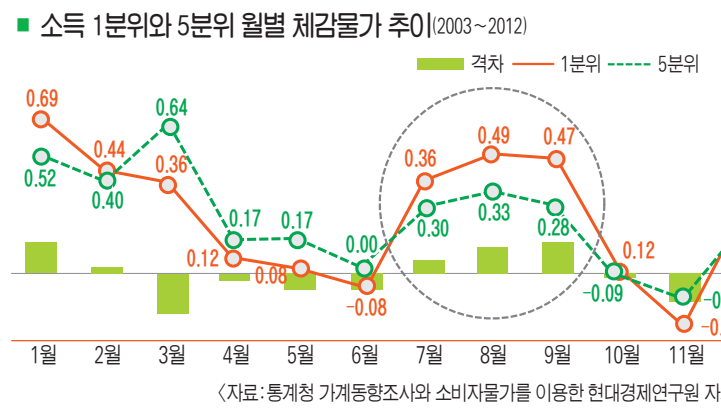
3일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내놓은 '저소득층 여름철 체감물가 높다-잠마찰 물가관리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농산물의 월별 물가 상승률은 6월~4.2%에서 7월 2.0%, 8월 5.4%, 9월 4.2%로 나타났다.

강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채소류의 물가 상승이 전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10년간 채소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6월 -9.8%에서 7월 6.6%, 8월 13.3%, 9월 14.7%로 급등했다. 여름철 농산물 물가 불안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이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는 6월에 전월대비 0.08% 하락했지만, 7월부터 0.36%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8월 0.49%, 9월 0.47%로 올랐다. 이는 고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폭(7월 0.30%, 8월 0.33%, 9월 0.28%)보다 훨씬 높았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지출비중은 19.5%로, 고소득 가구(11.7%)보다 7.8%p 컸다.

실제 2003~2012년 채소의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6월 -9.8%였지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만 7월 6.6%, 8월 13.3%, 9월 14.7%로 급등했다. 특히 배추(7월 30.4%, 8월 47.1%), 상추(7월 50.7%, 8월 21.9%), 시금치(7월 44.7%, 8월 40.6%), 무(7월 17.2%, 8월 34.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김 연구원은 “여름철 물가상승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큰 폭으로 전이되고, 이는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농산물 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난해 경영 잘했다

최우수지역본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사진)가 최근 '2012년도 내부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지역본부에 선정됐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3일 공사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지역본부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생산성 제고 등 성과



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김행운 본부장이 취임한 이래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체계적인 경영성과 관리와 함께 영산강권역 미래형복합영농공간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과 농

지은행사업의 성공적 추진했다. 공장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의 실천과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4년만의 봄 가뭄 극복과 3차레나 온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등 전남지역본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드 해지 정말 어렵네

단계 복잡하고 일부는 인터넷 해지 안돼

30대 중반의 회사원 A씨는 최근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허탕을 쳐야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

난 3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의 하나로 해지 신청서 팩스 전송 등 복잡했던 카드 해지 방식을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카드사들은 카드 소개 및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클릭해 해당 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카드 해지 항목은 개인정보 변경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접속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카드사는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카드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야간 쇼핑족 잡아라” 다양한 마케팅

“야간 쇼핑족을 잡아라”

최악의 전례년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의 운도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이 더운 시간대를 피하고 저녁 시간대에 쇼핑에 나선 고객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여름 할인행사 첫 주말인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시간대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줄어든 반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매출은 10%

이상 늘었다. 이는 더운 시간대를 피하고 저녁 시간대에 장보기에 나선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백화점은 고객들의 이러한 쇼핑 패턴의 변화를 감지하고 ‘야간 특수’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특별 할인 혜택을 주는 특가 상품전을 늘렸고 퇴근시간 무렵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떨이’ 상품군도 대폭 늘렸다. 또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FOR YOUR HEALTH